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제재 활용의 전통

김종철*

1. 한국어 교육과 정보 교류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은 언필칭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한다. 또 한국문학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 문화의 정수(精髓)를 알거나 체득(體得)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야 한다고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번쯤은 고려해야 한다.

패공(沛公:한고조 유방-인용자)이 처음 함곡관(函谷關)으로 들어갔을 때 소하(蕭何)는 혼자서 진(秦)나라의 도서(圖書)를 거둬들였는데, 천하가 평정되기에 이르러 한(漢)에서 그 요해지와 호구를 남김없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소하(蕭何)의 공로였다. 수(隋)나라의 장손성(長孫晟)이 돌궐(突厥)에 가서는 사냥 나갈 때마다 그 국토의 상세한 상황을 기록하곤 하였고, 돌아와 문제(文帝)에게 표문(表文)을 올리고는 입으로는 그 형세를 말하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손으로는 그 산천을 그리곤 하다가 마침내 그 일로 후일의 보람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니 유현(輿軒:천자의 사자가 타는 수레-인용차)을 타고 다른 나라에 사신가는 자로서는 도적(圖籍)이란 본래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하물며 고려(高麗)는 요동(遼東)에 있어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후전근복(候甸近復:가까이 있는 복속 지역-인용차)같지 않기 때문에 도적의 작성은 더욱 어렵다.¹⁾

1123년 송(宋)의 국신사(國信使) 일행으로 고려(高麗)의 송도(松都)를 방문한 서공(徐兢, 1091:1153)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쓰고 그린 배경을 말한 것이다. 사신의 첫째 임무는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다. 인용문 속의 ‘후일의 보람은 수(隋)나라 장손성이 돌궐에 사신으로 가서 그 지형을 상세히 알아온 덕분에 뒤에 수나라가 돌궐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서공이 고려의 이모저모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기술한 것 역시 가혹하게 말한다면 그 나뉠의 후일의 ‘보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신을 이웃나라에 파견해왔으므로 모든 나라가 이웃나라에 어떤 ‘보람’을 기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중국과 일본에 파견된 사신들 중 상당수가 그 견문(見聞)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그 증거이다. 신숙주(申叔舟)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를 지어 당시 일본과 유구(流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축적했으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옥갑야화(玉匣夜話)”에서 허생의 입을 빌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선발하여 청(淸)나라 사람 모습을 하게 하여 청나라에 보내서는 선비는 과거를 보고 상인을 장사를 하면서 그 실정을 정탐하고 청나라에 불만을 가진 호걸들과 결탁하면 천하를 뒤집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

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序,” 국역고려도경(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8), 30면

다.²⁾ 또 “심세편(審勢篇)”에서는 주자(朱子)를 높이고 사고전서(四庫全書) 작업을 벌여 한족(漢族)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 일에 골몰케 하여 반청의식(反淸意識)을 잠재우는 청나라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한족 지식인들과 깊이 사귀어 천하의 대세를 엿보아야 한다고 했다.³⁾

국제 교류의 일환인 한국어교육이 꼭 이런 종류의 ‘보람’을 추구한다고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의 통역자(通譯者) 양성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추구하는 ‘보람’은 무엇인가? 그러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2. 상대국의 정보(情報)로서의 언어와 문학

고대(古代)에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국가 차원의 외교와 교류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를 두고, 통역관을 양성해 왔는데, 신라의 영객부(領客府), 태봉의 사대(史臺), 고려의 통문관(通文館), 조선의 사역원(司譯院)이 그것이다. 사신이 오고 가면서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거나 재확인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기록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부여(夫餘)는 장성(長城)의 북쪽에 있다. 현토(玄菟)와 천리나 떨어져 있다. 남으로는 고구려(高句麗), 동으로는 음루(挹婁), 서로는 선비(鮮卑)와 접해 있으며, 북에는 약수(弱水)가 있고 사방이 이천 리쯤 된다. (...) 은정월(殷正月)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며 춤춘다. 이를 영고(迎鼓)라 한다. 이때에는 형벌을 집행

2) 朴趾源, 이가원 역, 국역열하일기(2)(민문고, 1989), 309면 참조

3) 같은 책(1), 438-445면 참조

하지 않고 죄수들을 풀어준다. 이 나라에서 옷은 흰빛을 숭상한다. (...) 통역(通譯)이 와서 말을 전할 때는 모두 꿇어앉아서 손으로 땅을 짚고 조용히 말한다.⁴⁾

부여의 지리, 인구, 산업, 관제, 신앙, 형벌, 풍속 등등의 요점을 기록하고 있다. 사신의 교환, 상품 교역 등등을 통해 부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누적하고, 그것을 압축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다. 『삼국지』만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부여, 고구려, 동옥저 등등의 기록이 이와 유사하다. 언어(言語) 역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고구려를 기술하면서 “언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부여와 같은 것이 많다(言語諸事 多與夫餘同)”고 했고, 읍루(挹婁)는 “읍루인의 생김새는 부여와 비슷하나 언어는 부여·고구려와 같지 않다(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고 했으며, 동옥저(東沃沮)는 “그 언어가 고구려와 같지만 때때로 작은 차이가 있다(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예(濊)는 “언어와 법속이 고구려와 대체로 같다(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진한(辰韓)은 “그 언어가 마한과 같지 않다(其言語不與馬韓同)”고 했다.

이 시기에 상대국의 문학 또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논형(論衡)』,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양서(梁書)』, 『위서(魏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등에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建國神話)와 음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학과 예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소산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늘날 개념으로 볼 때

4)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 譯人傳辭 皆跪 手據地竊語.”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경인문화사 영인, 1977., 211면

신화(神話)가 문학에 속하므로 중국 쪽에서 부여, 고구려 및 백제의 건국 신화를 기술한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 역시 상대국의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 나라 지배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숭상하는 바에 대한 정보도 신화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서(史書)에 상대국에 대한 주요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은 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그 체제는 그 때 그 때 필요한대로 변경되기도 했다. 예컨대 전반적인 정보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졌던 외교나 교역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반면 사신(使臣)이 견문한 바를 개인 저술의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기술 방식은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양상을 띤다. 예컨대 송(宋)의 오식(吳拭)과 왕운(王雲)은 1103년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각각 『계림기(鷄林記)』 20권, 『계림지(鷄林志)』 30권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현재 왕운의 『계림지』 잔본(殘本) 8조(條)가 남아 있다. 이 8조는 불감(佛龕), 승사(僧寺), 승불취(僧不娶), 직석(織席), 칠(漆), 수식(收息), 염채(染采), 승납(僧納) 등⁵⁾인데, 불교 중심이긴 하나 산업에 관련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분류 체계를 갖춘 저술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체계를 갖춘 저술 형태로 사신이 견문한 바를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은 『계림유사(鷄林類事)』,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조선부(朝鮮賦)』 등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할 때, 이러한 전반적 관심 속에 특히 한국의 언어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바대로 고려 국신서장관(高麗國信書狀官)으로 고려에 왔던 송(宋)의 손목(孫穆)이 1103-1104년 사이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림유사(鷄林類事)』이다. 원래 토풍(土風)·조제(朝制)·방언(方言)의 3부와 조칙(詔勅)·표문(表

5) 浙江大學 韓國研究所 編著,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匯編(上)(學苑出版社, 1999), 21:22면 참조

文) 등의 부록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방언부(方言部)와 축약된 토풍·조제 부분만 전해지고 있다. 이 저술은 단순한 풍속지가 아니라 고려의 사신을 응대하거나 고려에 파견되는 송(宋)의 외교사절들 또는 송상(宋商)들을 주 대상으로 한 고려 안내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⁶⁾, 중국인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와 외국어의 대역어휘집(對譯語彙集) 중 가장 오래된 것⁷⁾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려방언(高麗方言)’ 부분은 한국어 교재의 성격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350여 항목의 어휘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어휘들을 같은 종류로 묶어보면 천문류(天文類), 귀신류(鬼神類), 선불류(仙佛類), 수사류(數詞類), 시일류(時日類), 상하류(上下類), 사방류(四方類), 지리류(地理類), 수화류(水火類), 초목류(草木類), 금수류(禽獸類), 인사류(人事類), 친족류(親族類), 신체류(身體類), 곡류(穀類), 음식류(飲食類), 금은류(金銀類), 마포류(麻布類), 의장류(衣裝類), 침선류(針線類), 염색류(染色類), 도량류(度量類), 일반류(一般類)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⁸⁾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분류 체계와 ‘천왈하날(天曰漢捺)’, ‘금일왈오날(今日曰烏捺)’처럼 중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기록하는 방법은 뒤에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상대국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언어를 통한 상대국의 생활, 풍토,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명(明)의 회동관(會同館)에서 『화이역어(華夷譯語)』의 일환으로 편찬(15세기로 추정)한 한국어 통역 교재인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오면 보다 분명해진다. 여기서는 중국어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및 중국어의 한국한자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휘 항

6) 高柄翊, “鷄林類事的 編纂年代,” 歷史學報(10), 1968, 122:123면

7) 李基文, “鷄林類事的 再檢討,” 東亞文化(8), 1968, 215면

8)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2), 1955, 참조

목들을 천문문(天文門), 지리문(地理門), 시령문(時令門), 화목문(花木門), 조수문(鳥獸門), 궁실문(宮室門), 기용문(器用門), 인물문(人物門), 인사문(人事門), 신체문(身體門), 의복문(衣服門), 성색문(聲色門), 진보문(珍寶門), 음찬문(飲饌門), 문사문(文史門), 수목문(數目門), 간지문(干支門), 봉명문(卦名門), 통용문(通用門)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19개의 항목으로 분류된 어휘들과 그 용례들을 통해 당시 조선의 자연, 풍속, 문물, 제도 등을 포괄하고자 한 것이다.

세밀한 어휘 분류를 통해 상대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한 것은 중세 동아시아 외국어 학습 교재의 공통 특징이었다. 예컨대 조선의 중국어 어휘 교재인 『역어유해(譯語類解)』(1682) 역시 ‘천문(天文), 시령(時令), 기후(氣候), 지리(地理), 궁궐(宮闕), 관부(官府), 공식(公式), 관직(官職), 제사(祭祀), 성곽(城郭), 교량(橋梁), 학교(學校), 과거(科擧), 옥택(屋宅), 교열(教閱), 군기(軍器), 전어(田漁), 관역(館驛) …’ 등으로 부문별 편찬을 했으며, 일본의 한국어 학습 교재인 『교린수지(交隣須知)』 역시 ‘천문(天文), 시절(時節), 주야(晝夜), 방위(方位), 지리(地理), 강호(江湖), 수모(水貌), 주楫(舟楫), 인품(人品), 인성(人性), 관작(官爵), 천륜(天倫), 두부(頭部), 신부(身部) …’ 등으로 부문별 편찬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 국가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왔고, 역관(譯官)을 양성하거나 교역(交易)을 위해 상대국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에 기반을 둔 언어 학습 방법을 도입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 실용 회화 중심의 교재 편찬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려 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어 학습 교재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로서 이 두 교재는 매우 정치하게 편찬된 교재이다. 전자는 교역에 나선 상인의 전반적인 여정을 교재 구성의 기본 틀로 삼고 그 여

행과 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실용 회화 중심의 교재이고, 후자는 사신으로 중국에 간 사람들이 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편찬한 실용 회화 교재인데, 특히 후자는 오늘날 외국어 학습 교재 편찬 체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⁹⁾ 이처럼 실용적인 회화 중심의 외국어 학습은 『노걸대』와 『박통사』에 와서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정밀한 체제를 갖추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에 들어와서 상대국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문학의 경우 한문문학이라는 공동의 문어문학과 함께 개별 국가의 민족문학이 존재했으므로 어느 쪽에 더 주목을 했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상대국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자국의 언어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문학에 대한 관심도 상대국의 민족문학에 더 치중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남은 자료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상대국의 실정 파악과 외교 활동 자체를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공동 문어문학이 더 많은 관심을 받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경우 상대국에 한문 문학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문물(文物)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고, 특히 자기네와 같은 문물제도가 있는가를 주목했다. 예컨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는 ‘동문(同文)’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했는데, 송(宋)과 고려(高麗)가 공유하는 문화(文化)를 서술한 것이다. 정삭(正朔), 유학(儒學), 악률(樂律), 권량(權量) 등이 그 내용으로, 유학과 악률 부분에서 고려의 문학과 예술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고려나 조선도 중국에 비해 문물이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과 대등한 한문문학을 내보여야 했다. 즉 자기 나라가 문화적으로 손색이 없거나 우월

9) 강우성(康遇聖)이 편찬한 일본어 학습서 『첩해신어(捷解新語)』 역시 실무 중심의 학습서이다. 조선의 관리와 왜관(倭館) 근무자 사이의 실무 접촉 및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대화체로 구성한 것이다.

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즐겨 이용된 것이 한문문학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었으므로 민족문학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신을 파견할 때 문필에 능한 인물을 선발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 사신들과 응접 관리들 사이의 한시(漢詩) 수창(酬唱)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그 결과이다.¹⁰⁾

통역을 통한 구어의 소통이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였다면 공동문어문학인 한문문학의 직접적인 소통은 문화적 소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통은 모두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상대국의 민족문학은 고려 말의 시점에서 볼 때 학습의 제재 또는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¹⁾

3. 외국어 학습 제재로서의 문학

1) 중세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

『노걸대』와 『박통사』에 와서 외국어 학습에서 상대국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한 어휘 학습, 실제 대화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회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외국어 학습이 상당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인데, 이 체계 속에 문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고려는 통역을 전담하는

10) 대표적으로 황화집(皇華集)에 수록된 시들을 들 수 있다.

11) 고려 말에 『노걸대』, 『박통사』와 같은 수준 높은 중국어 학습서가 편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문학이 외국어 학습의 제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뒤에 살펴겠지만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 제시된 몽고어, 여진어 등의 교재에는 부분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선 초기에 도입된 교재인지 고려 말에 도입된 교재를 이어받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국가 기구인 통문관(通文館. 뒤에 司譯院으로 개칭)을 두었고, 한어통사(漢語通事), 몽고어통사(蒙古語通事), 여진어통사(女眞語通事)를 양성했다. 고려 말에 『노걸대』와 『박통사』가 등장한 것이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면 그 당시 통역 양성 과정에 문학 작품이 제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통역을 양성하면서 어떤 교과서를 사용했는지, 어떤 시험 과목을 두었는지가 문헌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어렵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통역 양성 과정에 외국어 학습 제재로서 문학이 활용되었음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국어 교육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조선 초기에 중국어 교육의 핵심 교재인 『노걸대(老乞大)』가 상인(商人)을 주체로 한 회화인 것이 언어 교육의 품격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 설장수(倭長壽)의 『직해소학(直解小學)』이 정식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이외에 이변(李邊, 1391:1473)이 편찬한 『훈세평화(訓世評話)』¹²⁾가 참고 교재로 등장했다. 『훈세평화』는 한국과 중국의 여러 서적에서 충(忠), 효(孝), 열(烈), 신(信)에 관계되는 글들을 뽑아 한문 원문과 함께 중국어 번역문을 함께 실은 것인데, 그 글들은 주로 설화(說話), 전(傳), 필기(筆記) 등이다. 그 중에는 재미있는 단편(短篇)도 적지 않다. 즉 윤리 교육 외에 문학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 교재로 삼은 것인데, 한국의 경우 문학 작품이 외국어 교육의 제재로 이용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훈세평화』는 교재로서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원래 문언(文言)을 번역한 것이어서 일상어에 가까울 수 없었던 것이다.

12) 姜信沆, “訓世評話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24)(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및 박재연 외 역해, 訓世評話(태학사, 1998), 참조

『직해소학』 역시 일상어와 거리가 멀어서 그 대신 『오륜전비(伍倫全備)』가 17세기부터 정식 중국어 교재로 채택되었고 1721년에 교재로서 보다 정비된 『오륜전비언해(五倫全備諺解)』가 나왔다. 명(明)의 구준(丘濬, 1420:1495)의 희곡 작품 『오륜전비』는 유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것이 교재로 채택된 것은 그 표현이 전아(典雅)하고 내용이 도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교재 또한 뒤에 어휘 교재인 『역어유해(譯語類解)』로 교체되었는데, 그 지나친 교훈적 내용과 일상적 구어교육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 이유였으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훈세평화』, 『오륜전비』로 이어지는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의 활용은 주목할 만하고, 특히 교역(交易)을 위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고급한 외국어 구사를 위해 문학 작품을 제재로 선택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¹³⁾

몽고어 교재의 경우 『하적후라(何赤厚羅)』, 『거리라(巨里羅)』, 『왕가한(王可汗)』 등이 문학을 활용한 교재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적후라(何赤厚羅)』는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 “하적(何赤)은 한어(漢語)로 ‘은(恩)’이고, ‘후라(厚羅)’는 한어로 ‘보(報)’이다. 선악보응(善惡報應)의 이야기이다.(何赤華言恩也 厚羅華言報也 善惡報應之言也)”라고 했으니 선악보은담(善惡報恩譚)으로 볼 수 있다. 『거리라(巨里羅)』는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 “거리라(巨里羅)는 여우 이름이다. 여우가 사자와 소와 함께 문답하는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巨里羅 狐名也 設爲狐與獅牛問答之語)”라고 했으니 우화(寓話)로 보인다. 한편, 『왕가한(王可汗)』은 몽골족의 추장 토고릴의 이야기를 수록한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 이 교

13) 이상에 대해서는 김종철, “조선시대 외국어교육과 서사문학,” 인권환 외, 고전문학 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상), 월인, 2003, 참조

14) 이상의 내용은 宋基中,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一),” 국어학 (14), 국어학회, 1985. 및 姜信沆, 韓國의 譯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20:124면 참조

재들은 『경국대전』에 제시된 몽고어 학습 교재이자 시험 과목들이었으므로 문학 작품이 몽골어 학습에 활용된 시기는 조선 초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여진어(女眞語) 교재는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그 중에는 문학 재를 활용한 교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여진어 교재였던 『소아론(小兒論)』을 신계암(申繼黯)이 1639년 만주어 교재로 개편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데(1777년 중간본), 공자(孔子)가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세 살 먹은 아이를 만나 문답하고는 그 총명함에 감탄했다는 내용이다. 세 살 먹은 아이는 항탁(項託)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이야기는 여러 종류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⁵⁾ 『팔세아(八歲兒)』 역시 신계암이 만주어 교재로 개편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데(1777년 중간본), 한(漢)나라 때 8세 아이가 과거장에 나아가 오천 명의 선비들과 글 경쟁을 하여 선발되고 나중에 명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전해지지 않는 『칠세아(七歲兒)』 역시 그 내용은 앞의 두 책과 유사하리라고 추정된다.¹⁶⁾ 이들 여진어 교재는 『경국대전』에 보이는 것이므로 조선 초기부터 문학을 활용한 여진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滿洲語) 교재 중 문학을 활용한 것으로는 우선 『삼역총해(三譯總解)』를 들 수 있다. 1704년에 초간본이 나오고 1774년에 중간본이 나왔는데, 현재 중간본이 전해지고 있다. 만주어로 번역된 『삼국지(三國志)』

15) 구체적인 내용은 鄭光, “청학서 <小兒論>,” 역학서 연구(J&C, 2002), 참조
공자가 어린아이와 문답하여 패배했다는 이야기는 재미있는 일출거리로서 조선시대 지식인들 사이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 소장인 『古談』이라는 한문 필사본에 <孔子與黃鐸問答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小兒論>과 내용이 상통한다. 항탁은 항탁의 변형으로 보이며, 이 작품에서 어린아이의 나이는 7세이다.

16) 이상의 내용은 宋基中,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二),” 국어학(16), 국어학회, 1987. 및 姜信沆, 韓國의 譯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24:127면 참조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만주어 음을 한글로 전사하고, 또 한글 번역을 붙인 교재로 만주어 시험 과목이기도 했다. 이 외에 원래 여진어(女眞語) 교재였던 것을 만주어 교재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소아론(小兒論)』과 『팔세아(八歲兒)』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본(1777년, 초간은 1703년)만 남아 있는데, 지혜로운 어린이 이야기이다.

일본어 교재로는 『응영기(應永記)』와 『부사(富士)』 및 『본초(本草)』가 문학을 활용한 교재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국대전』에 제시된 왜학서(倭學書)에 속하는 것으로 『본초』는 일본의 중세 시가인 배해(俳諧)를 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응영기(應永記)』는 1399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응영란(應永亂)을 소재로 하여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정막부(室町幕府)에서 편찬한 훈몽(訓蒙) 교과서였던 것을 수입하여 일본어 교재로 쓴 것으로 보인다.¹⁸⁾ 『부사(富士)』는 일본에서 실용 문장 교육용 교재로 편찬된 것으로 그 내용은 증어(曾我) 형제의 복수를 다룬 역사 교재 『증아물어(曾我物語)』에서 가져온 것이다.¹⁹⁾

이렇게 보면 조선 시대 외국어 학습에서 문학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 때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문학을 활용한 교재는 『훈세평화』처럼 조선에서 편찬한 것과 『오륜전비』, 『거리라』, 『삼역총해』, 『부사(富士)』처럼 수입한 것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한 것들은 조선 초기 외국어 교육 교재가 주로 해당 외국의 훈몽(訓蒙) 교과서를 수입하

17) 宋基中,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二),” 참조

18) 정광·윤세영, 사역원 역학서 책판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66면 참조

19) 같은 책, 66·67면 참조

20)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몽고어, 여진어의 경우 그 학습 교재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몽고어의 경우 원(元)과의 관계 때문에 고려 때 중시되었던 외국어였다. 그러므로 몽고어 학습 교재 중 문학 작품이 제재로 된 교재들의 도입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여 사용한 것²¹⁾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의 문학 작품이 제재로 선택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모(某)가 35세시(1702년)에 참판사(參判使) 도선주(都船主)로 조선에 처음 건너갔다. 그곳의 모습을 견문했던 바, 다시 신사(信使)를 보낼 때에 조선어를 모른다면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마(對馬)로 돌아오자마자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 밑에 가 학습을 한 다음, 이듬해 36세시에 조선에 다시 건너가 꼭 2년간 머무르며 교린수지(交隣須知) 1책·유년공부(酉年工夫) 1책·을유잡록(乙酉雜錄) 5책·상화록(常話錄) 6책·권정고사언해(勸懲故事諺解) 3책을 짓고, 그 밖에 숙향전(淑香傳) 2책·이백경전(李白瓊傳) 1책을 스스로 베껴 매일 통사(通事)들이 있는 곳으로 가 학습하였다. 우천(雨天)의 때에는 수문군관(守門軍官) 혹은 통사를 불러 공부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바는, 한여름 염천하(炎天下)에 통사들에게서 돌아와 배웠던 말들을 베낄 때에는 눈이 침침해질 정도였어도 '목숨을 5년쯤 단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주야(晝夜)로 밤심 않고 힘썼다.²²⁾

대관(代官)이 왜인 한 사람을 보내어 방으로 청하기에 들어가니 실내가 정결한데 시렁 위에 『고문진보(古文眞寶)』와 언서(諺書)로 된 『숙향전(淑香傳)』이 놓여 있다. 내가 『숙향전』은 어디다 쓰느냐고 물으니 조선말을 익히려고 두었다고 한다.²³⁾

21) 鄭光, 역학서 연구(J&C, 2002), 336면

22) 曹喜雄·松原孝俊,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21면에서 재인용

23) “問卜代官送一倭 恩要入其室 室中淨潔 架上有古文眞寶諺書淑香傳 余問淑香傳何用 曰欲習知本國方言而置之矣.” 權燮, “南行日錄”, 『玉所集』

앞의 기록은 『왜어유해(倭語類解)』, 『교린수지(交隣須知)』 등을 편찬한 우삼방주(雨森芳洲, 1668:1755)의 기록이고 후자는 권섭(權燮, 1671:1759)이 1731년 부산(釜山)의 왜관(倭館)에 가서 본 것의 기록이다. 권섭이 만난 대관(代官)은 임진왜란 때 밀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아들이다. 위의 두 자료에서 『유년공부』와 같은 설화집²⁴⁾과 함께 『숙향전』·『이백경전』 등의 국문소설이 한국어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18세기 초엽부터 한국어교재로 한국의 설화와 국문소설이 채택되기 시작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소급한다면 17세기 후반부터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기록들과 함께 현재 일본의 녹아도(鹿兒島) 묘대천(苗代川)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한국인 집안에서 나온 『숙향전』이 한국어 학습 교재로 사용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⁵⁾ 한편 『숙향전』을 비롯한 『최충전』, 『임진록』, 『임경업전』, 『춘향전』 등은 19세기말 부산(釜山) 초량(草梁)의 왜관(倭館)에서 행해진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의 풍습을 이해하는 자료로, 번역 학습의 자료로 활용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²⁶⁾

중국 쪽에서 한국어 학습을 할 때 국문소설이 활용된 사례를 보자.

함께 떠날 즈음에 쌍림이 수레 왼편을 비워서 나를 앉히고 제가 스스로 몰아갔다. 쌍림은 또 장복을 불러서 오른편에 앉히고는 그더러, “내가 조선말로 묻거든 너는 북경말로 대답하여라.” 한다. 둘이서 수작하는 것을 들으니 우스워서 허리를 잡았다. 쌍림의 조선말은 세 살 먹은 아이가 밤 달라는 말이 밤 달라는 듯싶고, 장복의 중국말은 반병어리가 이름 부르는 듯 언제

24) 『유년공부』는 한국어 학습서로 여기에 50편의 한국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고 한다. 권두환, “小倉文庫本 『酉年工夫』에 대하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제94회 학술발표회 요지(2004. 4. 22.), 참조

25) 曹喜雄·松原孝俊, 앞의 글, 참조

26) 大曲美太郎, “釜山港日本居留地に於ける朝鮮語教育,” 靑丘學叢(24), 1936, 152면.

나 애(艾)하는 소리만 거듭한다. 혼자서 보기는 참 아까운 일이다. 쌍림의 우리말이 장복의 중국말보다 어렵없이 못하여 말끝마다 존비(尊卑)를 가려 쓸 줄 모르고, 게다가 말마디를 구울릴 줄 모른다. (...)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30리를 갔다. 이는 대체 둘이 서로 피차의 말을 시험하려 한 것인데 장복은 겨우 책문(柵門)에 들어온 뒤 길에서 주위 들은 데 불과한 것이나, 쌍림이 평생 두고 배운 것보다 더 잘한다. 이로 보아 우리말보다 중국말이 쉬움을 알겠다.

수레는 삼면을 초록빛 전으로 휘장을 쳐서 걸어올렸고, 동서 양쪽에는 주렴을 드리우고 앞에는 공단으로 차일을 쳤다. 수레 안에는 이불이 놓였고, 한글로 쓴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두어 책이 있다. 비단 언문 글씨가 너절할 뿐 아니라 책장이 헤어진 것이 있다. 내가 쌍림더러 읽어라 하였더니, 쌍림이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높여 읽었으나 전혀 말이 닿지 않고 뒤 범벅으로 읽어간다. 입안에 가시가 돋힌 듯이 입술이 얼어붙은 듯 군소리를 수없이 내며 끁끄거린다. 내 역시 한참 들어도 멍하니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 그래서서는 제가 늙어 죽도록 읽어도 아무 보람이 없을 것이다.²⁷⁾

쌍림은 박지원이 1780년 7월에 압록강을 건너 산해관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청나라 측 호행통관(護行通官)이다. 그의 한국어 실력은 형편 없어서 발음이 명료하지 못하고, 한국어에 발달된 높임법을 제대로 모른다.

27) 朴趾源, 李家源 譯, 朔洲隨筆, 熱河日記(1)(민문고, 1989), 199:201면

“遂同出。雙林虛左坐我。渠自御而行。又招張福。坐之右轅。雙林約張福曰, ‘我以朝鮮語問之。你以官話應之。’ 聽兩人酬酢。不覺絕倒。一個東話的。三歲兒索飯似覓粟。一個漢語的。半啞子稱名。常覺艾。可恨無人參見。雙林東話大不及張福之漢語。語訓處。全不識尊卑。且不能轉節。(...) 如此問答而行三十里。蓋兩人欲試其彼此話頭。而張福不過入柵後。沿路所學。然大勝於雙林平生之所學。始知漢語易於東話也。車一面以綠氈爲帳而卷之。東西垂縹簾。前面以黃緞爲遮日。車中置鋪蓋。有東諺劉氏三代錄數卷。非但諺書。蠹荒。卷木破敗。余使雙林讀之。雙林搖身高聲。而全未屬句。混淪讀去。口棘唇凍。唾出無數銜聲。吾良久聽之。茫然不識爲何語。渠雖終身讀之。似無益矣。” 朴趾源, 燕巖集(경인문화사 영인, 1982), 178면

읽기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은 아마도 교재가 어려웠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유씨삼대록』은 장편소설로서 주로 사대부가에서 읽히던 작품으로 보통의 대중소설이 아니다. 어쨌든 청나라 통역관들이 한국의 국문소설을 한국어학습 교재로 쓰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17세기 이후에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의 국문소설이 한국어 학습 교재가 된 까닭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추정을 하자면 한국어 읽기 교재로 삼을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제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일상의 구어(口語)를 반영하고, 구체적 정황 속에서 대화가 포함되고, 풍속을 비롯한 한국인의 생활 속 사물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언어 제재로서는 소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7세기 후반 이후에 국문소설이 많이 창작되고 널리 읽히게 된 사정도 작용했다고 본다.²⁸⁾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17세기 이전에 창작된 국문소설은 극히 드물고, 또 국문으로 된 기록물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 국문소설은 17세기 이후 점차 그 독자층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실생활에서 읽히는 글이 되었고, 이 점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가장 유용한 교재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대 이전에 한국은 희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교재로 『오류전비』를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28) 小田幾五郎(1754-1831)의 『象筭記聞』(1794?)은 역시 조선의 지리, 풍속, 문물, 제도 등등을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 하에 서술한 것인데, '朝鮮小說'이란 항목으로 『장풍운전』, 『구운몽』, 『최현전』, 『장박전』, 『임장군충렬전』, 『소대성전』, 『소운전』, 『최충전』, 『사씨전』, 『숙향전』, 『옥교리』, 『이백경전』, 『삼국지』 등의 국문소설을 열거하고 있다. 민간에서 읽고 있는 소설을 주목하여 기록한 것으로, 소설이 풍속 정보의 차원에서 언급된 사례이다. 그런데 소설이 민간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소설이 당대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유용한 교재로 쓰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근대 전환기 서양 국가들의 한국어 학습의 경우

문학 작품, 특히 국문소설을 한국어 학습 교재로 채택한 것은 한국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 스스로 개척한 것인데, 이 두 나라보다 뒤에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서양인들은 어떻게 문학을 활용했는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 관심을 기울여 저서를 낸 첫 인물로는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 파견원이었던 지볼트(Phili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꼽힌다.²⁹⁾ 그는 일본의 출도(出島)에 머물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 중에 언어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문학으로서는 한국의 민요, 가사 『옥설화답가』 및 자신이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한시 등도 있다. 물론 이들 민요와 가사 등은 한국어 교재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의 한 부분으로 수록된 것이다.

한국의 국문문학 작품을 한국어 제재로 활용한 첫 사례는 프랑스 신부 리델(Félix-Clair Ridet)의 『Grammaire Coréenne(조선어문법)』(1881)³⁰⁾이다. 그는 이 책에서 모두 17편의 국문으로 된 단편 서사 작품과 그 불어 대역(佛語 對譯)을 수록하고 있는데, 한국어 독해 연습 제재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것이다. 리델(1830:1884) 신부는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신부로 1861년에 조선에 들어와 전도(傳道)하다가 1866년 천주교 박해를 피해 탈출하여 1877년 다시 조선에 잠입하기 전까지 만주에 있으면서 함께 탈출한 최지혁(崔智爨, 일명 善一, 세례명 요한)을 비롯한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저서를 완성했다.³¹⁾ 이 책에 수록된 설화와 야담들은 최

29) 지볼트에 대해서는 고영근, “지볼트의 한국 기록을 뒤적이며,”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탑출판사, 1998), 참조

30)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역대한국문법대계(2-19)(탑출판사, 1977), 참조

31) 柳洪烈, 高宗治下西學受難의 研究(을유문화사, 1962), 352면 참조

지혁 등 조선인 신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 수록된 17편의 단편 서사들은 설화 및 야담(野談)들인데, 상당히 수준이 뛰어나다. 최지혁은 충청도 공주(公州) 사람으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리델 신부를 뒷바라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선어문법』과 『한불자전(韓佛字典)』은 일본 횡빈(橫濱)에서 인쇄되었는데, 이 때 사용한 한글 활자의 자모(字母)는 최지혁의 서체(書體)에 의한 것이었다. 이 최지혁의 한글 서체는 일본 장기(長岐)의 성서인쇄소에서 사용하게 되고, 이 성서인쇄소가 1888년 서울로 옮겨오면서 서체도 국내에 들어와 이후 국내 출판에 활용되었다.³²⁾ 이 점에서 최지혁은 한글 문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민간에 전승되던 단편 서사들을 정선(精選)하여 서양인들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교재의 제재로 삼는데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조선어문법』에 선정된 작품 중 <나귀 알 소동>³³⁾, <사기 중매>, <이인 사위 삼기>, <면면편편꿀꿀> 등은 민간 설화와 상통하고, <전라도 감영 이방 포흠 값기>, <제주 한라산 신선>, <백정이 양반되다>, <추노(推奴)>, <조현명>, <희정원에서의 농담> 등은 야담(野談)에 가깝다.³⁴⁾ 설화와 야담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이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설화 또는 야담으로 귀속시키기는 힘드나 전체적으로 설화와 야담이 비슷하게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교재는 평민층과 양반층이 공유하는 서사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할 수 있다. 수록된 작품 중 <거울 소동>은 경상도 젊은 양반이 서울 가서 거울을 사 왔는데, 그 거울을 본 아내가 첩을 구해 온 것으로 알고,

32) 같은 책, 356면 참조

33)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제목이 없다. 편의상 필자가 제목을 붙인 것이다.

34) 야담에 가까운 작품들은 비슷한 내용의 작품을 야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어문법』에 수록된 야담들은 야담 연구의 관점에서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간부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소란이 벌어진 내용으로 이변이 편찬한 『훈세평화』에도 이와 유사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또 <제주 한라산 신선>은 뒤에 살펴 볼 에카르트가 편찬한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안서우(安瑞羽)의 『금강탄유록(金剛誕遊錄)』 및 판소리 『가짜신선타령』과 상통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에카르트(P. A. Eckardt)의 『朝鮮語交際文典 附註解』(1923)³⁵ 역시 설화를 제재로 활용한 교재이다. 주로 설화를 위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일상담화 등을 섞은 독해 교재로서 독어 번역을 붙였다. 여기에는 모두 20편이 수록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제목을 붙였다.

<앵무새와 오리아야기>, <도적을 속인 진담>, <나는 노루>, <병 고친 이야기>, <세 병신 이야기>, <아이들의 소원>,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 <웃음거리>, <거짓 이인>, <정신이 없는 아이>, <서울 구경>, <제주 친제책>, <제주 한라산 신선 이야기>, <왕몽>, <임금이 피란함이라>, <견우적녀성>, <지혜로운 의원>, <농민이 벼슬한 이야기>, <남의 성미 맞추기가 어려움>, <도적이 개과함>

저자는 서문에서 정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13년 동안 전국을 다녔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 문학적 수준에서는 리델의 『조선어문법』에 수록된 것들에 뒤떨어진다. 그러나 교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리델이 수집한 것들은 초급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고급이기 때문이다.

로트(L. Roth)의 『한국어문법』(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 (1936)³⁶에도 설화 및 단편 서사물 몇 편이 들어 있다. <의 좋은 형제>,

35)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역대한국문법대계(2-24), 참조

36) 같은 책(2-25), 참조

<아이를 삼은 효자>와 같은 설화, <이성계와 그 스승>, <인색한 부자를 놀린 머슴>와 같은 짤막한 소화(笑話), 톨스토이의 <사랑의 승리> 등등이 독해 연습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조선문학'이란 제목으로 한국문학사를 간략히 서술한 글을 독해 연습 제재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역사'를 간략히 서술한 글을 역시 독해 제재로 제시한 것에 대응한다. 한국문학사는 삼국시대, 남북조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현대(신문학)로 시대구분을 하여 한문학과 국문문학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³⁷⁾

작문 제재로 한글 편지가 활용된 사례로는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鮮英文法』(1914)³⁸⁾를 들 수 있다. 이 편지 양식은 당시 유행하던 『언간독』 양식을 준한 것이다. 저자는 한글 편지를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제시된 편지 사례들을 꼼꼼하게 익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언더우드는 이 책에서 국문소설처럼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한글 책을 어떻게 요령 있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한국의 시가 형식 및 운율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쪽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경우에도 문학 작품이 활용된 사례가 보인다.³⁹⁾ 포드스타빈(G. V. Podstavin, 1875:1924)이 블라디보스톡의 동방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재로 모은 자료 중에 소설이 들어 있다. 『경성백인백색』과 『옛장수』가 그것인데, 이들은 『한성신보(漢城新報)』 등에 실렸던 것이라고 한다. 『한성신보』는 1894년에 창간된 일어(日語)로 된 신문으로 당시 한국에 진출한 일본 거류민들을 독자로 한 신문이었는데, 거기에 한글로 된 소설을 연재하기도 했던 것이다. 『경성백인

37)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를 참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38)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앞의 책(2-12), 440:452면 참조

39) 이하의 내용은 김동연·러스 킹, "개화기 러시아 관련 한글 자료에 대하여," 한글(255), 2002, 207:211면 참조

백색』은 국내에 필사본 소설집 『여항소설』⁴⁰⁾ 속에 들어있기도 한데, 20세기 초 서울에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자기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한 작품이다. 『옛장수』는 옛장수가 횡재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내용의 중편소설이다. 1890년대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쪽에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된 문학 제재는 당대에 창작된 소설을 제재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근대소설을 한국어교육의 제재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근대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보기로 한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문학 작품을 제재로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어법급회화서(朝鮮語法及會話書)』(1917)의 경우 문례(文例) 속에 ‘물어(物語)’와 ‘가곡(歌曲)’ 항목을 설정하고 각각 <호(虎)와 호(狐)의 이야기>, <욕심(慾心) 많은 개>와 시조 2편(<태산(泰山)이 높다 해도>, <간밤에 불던 바람>) 및 동요 1편(<아가 아가 문(門) 열어라>)을 수록하고 있다. 우화 2편은 한국 고유의 것이라 하기 어렵고, 가곡이 한국의 민족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 교재 전체로 볼 때 문학의 비중은 극히 작다. 최재익(崔在翊)의 『조선어선생(朝鮮語の先生)』(1918)은 ‘문장(文章)’편을 설정하고 그 속에 짧은 우화(寓話) 4편을 수록하고 있다. <금란(金卵)>, <토끼와 거북>, <녹아(鹿兒)>, <냄비 도적의 재판>이 그것인데, 역시 문학은 다양한 읽기 제재 중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대 이전 일본과 중국의 한국어 학습에서 문학 제재는 소설이었음에 비해 근대 서양인들의 한국어 학습에서 활용한 문학 제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로 설화 및 야담을 주로 활용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소설을 활용한 경우이다. 단 러시아의

40)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다. 이종주, 여항소설(시인사, 1984), 참조

경우 『경성백인백색』이 옴니버스식 소설이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으로 따지면 그 분량이나 정보량이 설화와 야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옛장스』는 본격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는 특수하다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한국어교재의 경우 주로 기독교 선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화와 야담을 향유하는 평민층, 또는 양반층 일부를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어교육의 상황으로 치환하면 학습자 요구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로 하는 한국어를 습득했을 때 그 한국어를 한국의 어떤 계층과 접촉하며 구사할 것인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근대 이전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국문소설을 한국어 교육의 제재로 삼은 것은 도달할 언어 능력 자체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문학 제재 활용의 방향

서양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이래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문법적 특징에 의거한 한국어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점을 근대 이전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어를 한국의 전반적 정보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이해하고 익히고자 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학적 차원, 실용 정보의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의 방법론은 고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학이 한국어 교육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근대 이전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그 자체가 한국어 학습 전부이거나 아니면 서양의 경우에서 보듯 독해 활동에 국한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이 한국어 표현의 정수(精髓)라고 주장하나 그것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으

며, 한국인의 정서 또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좋은 제재라고 하나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이 한국어 교육의 제재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0년 이 넘게 되었다. 이론 이전에 경험적으로 문학이 교재로 활용된 역사가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지만 그 전통이 한국문학은 한국어 표현의 정수라든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제에 의지하여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세에 일본과 중국은 왜 주로 소설을 선택했으며 서양인들은 왜 구비적 상황에 있는 설화, 야담을 주로 선택했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제재는 주로 서사문학이었는데 이제 서사문학에서 시가문학으로 또 기록문학으로 그 제재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에서 근대의 한국을 이해시킬 것인가, 근대에까지 이어지는 전통의 면모를 이해시킬 것인가, 근대 이전의 한국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다시 말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전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제재로 삼았는지,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제재를 채택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주요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언어교재로서의 문학 제재, 서사

* 본 논문은 2004. 10. 31. 투고되었으며, 11. 6. 심사가 시작되어,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 문헌

- 姜信沆(1990), “訓世評話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姜信沆(2000), 韓國의 譯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20~124면.
- 高柄翊(1958), “鷄林類事の 編纂年代,” 『歷史學報(10)』, 122~123면.
- 고영근(1998), “지볼트의 한국 기록을 뒤적이며,”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권두환(2004), “小倉文庫本『酉年工夫』에 대하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제 94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 김동연·러스 킹(2002), “개화기 러시아 관련 한글 자료에 대하여,” 『한글』 제 255호, 207~211면.
-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7), 『역대한국문법대계(2-12·19·24·25)』, 탑출판사.
- 김중철(2003), “조선시대 외국어교육과 서사문학,”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상)』, 월인.
- 大曲美太郎(1936), “釜山港日本居留地に於ける朝鮮語教育,” 『靑丘學叢』 제24호, 152면.
- 朴趾源(1989), 이가원 역, 『국역열하일기』, 민문고.
- 方鍾鉉(1956),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제2호.
- 柳洪烈(1962), 『高宗治下西學受難의 研究』, 을유문화사, 352면.
- 李基文(1968), “鷄林類事の 再檢討,” 『東亞文化』 제8호, 215면.
- 李邊, 박재연 외 역해(1998), 『訓世評話』, 태학사.
-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序,” 『국역고려도경』(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8), 30면.
- 宋基中(1985),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一),” 『국어학』 제 14호, 국어학회.
- 宋基中(1987),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二),” 『국어학』 제 16호, 국어학회.

- 이종주(1984), 『여향소설』, 시인사.
- 浙江大學 韓國研究所 編著(1999),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匯編(上)』, 學苑出版社, 21~22면.
- 鄭光(1988), 『司譯院倭學書研究』, 태학사, 90~95면.
- 鄭光(2002), “청학서 <小兒論>,” 『역학서 연구』, J&C.
- 정광·윤세영(1998), 『사역원 역학서 책판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68면.
- 曹喜雄·松原孝俊(1977), “『속향전』 형성연대 재고,” 『고전문학연구』 제12호, 한국고전문학회.
- 陳壽,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경인문화사영인, 1977), 211면.

■ Abstract

A Historical Survey of Literary Work Material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Kim, Jong Cheol

From Ancient Times every Nations have interested in Foreign Language and Interpreters have learned Foreign Language for Diplomacy. For Example, many Histories of Ancient China recorded Languages of Korean Ancient Nations.

In Medieval Ages Literary Works entered as Education Material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case of Korea, Literary Works were utiliz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 Chinese, Mongolian, Manchu and Japanese -in Yi-Dynasty. Also Foreigners learned Korean by Korean Literary Works. Up to Now We can find documentary Evidences from 18th Century. For Example, Park, Ji-won(박지원, 1737 :1805) described in *Yeolha ilgi*(열하일기) that Official Interpreter of China learned Korean by Korean Novel *Yussisamdaerok*(유씨삼대록). Amenomori Hoshyu(雨森芳洲, 1668:1755), a Diplomatic Official of Japan, learned Korean by Korean Novel *Sukhyangjeon*(속향전), *Yibaekgyoungjeon*(이백경전) and Korean Folk Tales. Father Félix-Clair Ridel from France utilized Korean Folk Tales as Reading Korean Material in his *Grammaire Coréenne*(1881). P. A. Eckardt's *Schluessel zur Koreanischen Konversations = Grammatik*(朝鮮語交際文典 附註解)(1923) and L. Roth's *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1936) also used Korean Folk Tales as Reading Korean Material. G. V. Podstavin(1875:1924) taught Korean with Korean Novel *Yeotjangsa*(옛장사, A Taffy Seller) in Vladivostok.

Besides Missionary H. G. Underwood from USA emphasized writing Letter in Korean in his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鮮英文法)(1914).

Main of Literary Work Material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have been Folk Tale and Novel. Because Folk Tale and Novel can reflect Language, Customs and Culture very well. So We can recognize the Utilization of Epic as Material in Learning Korean as a Tradition.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Literary Work as Language Education Material, Epic